

이대호 연장 끝내기 투런...한국인 타자 최초

오승환 5번째 무실점 행진 김현수 볼넷2개 멀티출루

미국프로야구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끝내기 홈런을 때렸다.

한국인 타자가 메이저리그에서 연장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끝판대장’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시즌 5번째 등판에서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고,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무안타에 그쳤지만 볼넷 2개를 얻어내며 멀티출루에 성공했다.

이대호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2-2로 팽팽한 10회말 대타로 나와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렸다. 시애틀은 4-2로 승리했다.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이대호는 경기 내내 더그아웃에서 지켜보다가 2-2로 팽팽하게 맞선 10회 2사 1루 상황에서 타석을 맞았다.

그는 상대 좌완투수 제이크 디크만에게 초구 스트라이크와 2구 파울로 2스트라이크에 몰렸지만 3구째 97마일(약 156km)짜리 빠른 공을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다.

지난 9일 오클랜드전 이후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이자 시애틀을 4연패에서 탈출하게 해준 아치였다.

오승환은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이대호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2-2로 팽팽한 10회말 대타로 나와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렸다. 시애틀은 4-2로 승리했다.

팀이 3-4로 뒤진 7회에 등판해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개막 이후 계속되는 노히트 행진이다. 지난 11일 애들렌다 브레이브스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승을 거둔 이후 사흘만에 등판한 그는 이날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퍼

펙트 피칭을 하고 있다.

김현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좌익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으로 1루를 밟았다.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서 상대 선발 조 켈리에게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그는 이어 나선 조이 리카르트가 범타로 물러난 뒤 매니 마차도의 내야 안타 때 2루까지 진출했지만 크리스 데이비스가 2루수 땅볼로 물러나 득점에 실패했다.

/김민근기자

군산시장이 직장·클럽 축구대회 내일 개최

‘제6회 군산시장직장 및 클럽 축구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7일, 24일, 총 3일에 걸쳐 군산월명축구장 외 보조구장에서 개최된다.

군산시축구협회(회장 박용희)에서 주최하는 이날 대회는 70여 개 팀(직장 20팀, 클럽 50팀) 선수 및 관계자 등 3,500여명이 군산을 방문해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중국 연대시 임치도 체육구 부국장, 송인립 축구협회 주석 및 협회임원, 언론인 등 연대시 대표 축구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매결연 도시간 사회·문화·경제적인 교류의 물꼬를 터나가는 한편, 약 6억8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축구는 인류가 사랑하는 최고의 스포츠 중 하나”라며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인 대회 유치활동과 스포츠관광산업 대응전략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맨유, 웨스트햄 2-1 꺾고 FA컵 준결승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재경기 끝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준결승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맨유는 14일 오전 3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불린 그라운드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15~2016 FA컵 8강 재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지난달 홈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8강전에서는 간신히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정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서는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았던 끝에 승리했다.

맨유는 이날 마커스 래쉬포드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앤서니 마셜-안데르 에레라-마루앙 펠라니-제시 린카르드를 2선에 배치했다. 웨스트햄은 앤디 캐롤을 원톱으로 기용해 이에 맞섰다. 전반전은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다. 양 팀 모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후반전을 기약했다.

맨유가 먼저 웃었다. 후반 9분 신성 래쉬포드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12분에는 펠라니가 추가골을 신고해 2골차로 달아났다. 공지에 몰린 웨스트햄은 후반 34분 제임스 톰킨스가 헤딩골을 터뜨리며 추격의 불씨를 지켰다. 그러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맨유는 오는 24일 에버턴과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김민근기자

‘농구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정든 코트 떠났다

최우수선수 1회 · 파이널 MVP 2회 · 득점왕 2회 등 성적 화려

미국프로농구(NBA)를 주름 잡았던 LA 레이커스의 슈퍼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38·LA 레이커스)가 정든 코트를 떠났다.

브라이언트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2015~2016 NBA 정규리그 최종전 유타 재즈와의 홈 경기를 끝으로 은퇴했다. 브라이언트는 42분을 뛰며 60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활약을 펼쳤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레이커스는 유타에 101-96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올 시즌 최종 성적은 17승8패로 서부 최하위이지만 브라이언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충분히 화답했다.

1996~1997시즌 LA 레이커스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줄곧 한팀에서 뛰며 통산 5차례

챔피언에 올랐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1회, 파이널 MVP 2회, 득점왕 2회를 차지했다. 올스타전에도 18차례 뽑혔고, 미국대표팀으로 올림픽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브라이언트는 3년차인 1998~1999시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1999~2000시즌부터 ‘공룡 센터’ 샤킬 오닐과 함께 레이커스를 3시즌 연속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6~2007시즌 득점왕이 됐고, 다음 시즌에는 정규리그 MVP까지 올랐다.

이후 브라이언트는 트레이드로 영입된 센터 파우 기슬과 함께 2008~2009시즌과 2009~2010시즌에 2시즌 연속 챔피언에 올랐다. 완전히 팀의 중심에 서서 파이널 MVP도 독식했다.

올 시즌 그는 66경기에 나오며 주전으로



뛰었다. 19시즌 동안 통산 야부성공률이 45.1%였지만 마지막 시즌에는 35%에 그쳤다. 그래도 부상을 달고 살았던 직전 두 시즌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유종의미를 거뒀다. 브라이언트의 인기는 마지막 경기

의 티켓 가격에서도 증명됐다. 미국스포츠전문매체 폭스스포츠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평균 좌석 가격은 2110달러(약 243만원)에 달했다.

/김민근기자

문대성·이만기 등 체육계 인사, 국회 입성 좌절

제20대 국회 입성에 도전한 문대성(40) 새누리당 의원과 이만기(53) 인제대 교수, 박종길(70)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체육계 인사들이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2004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자 부산 시하하급 현역 의원인 문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인천 남동구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33.2%(3만771표)를 획득하는데 그쳐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50.6%·5만6857표)에게 밀렸다.

전하장사 출신으로 ‘사름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 교수는 경남 김해읍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얻었다. 99.9%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3만18837표(34.4%)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62.4%·7만600표)에게 뒤져 국회입성이 좌절됐다.

사격 선수 출신으로 태릉선수촌장 등을 역임한 박 전 차관은 전북 익산시의 새누리당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8.7%(6442표)의 지지율로 3위에 그쳤다. 46.1%(3만4201표)를 얻은 국민의당의 조해숙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 밖에 국민의당에서 도전에 나선 광선우 전 성남 FC 대표이사로도 인양 민안구에서 16.4%(1만8975표)로 3위에 그쳤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